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후 즉시	배포	2019.9.5.(목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		담 당 자	김 미 정 사무관 (02-2100-2681)

## **제 목 :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은 기업의 중장기 가치제고와 증권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.**

### **1. 대량보유 보고제도 개선 목표는 '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'이 아니라, 기업의 중장기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.**

☐ 기관투자자가 자산을 맡긴 고객에게 더 많은 수익을 돌려주기  
위해 주주활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

○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취득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,  
투자대상기업의 가치를 제고하여 수익률을 높이는데 관심

⇒ 기관투자자의 건전한 주주활동의 결과, 중장기 기업가치가 향상  
된다면 투자자와 기업 모두가 윈-윈할 수 있음

☐ 금번 제도 개선은 온건한 방식의 주주활동과 주주로서의 기본적  
권리행사에 대한 보고·공시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,  
주주활동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측 입장도 균형있게 반영

①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'일반투자' 영역을 신설하여  
기존의 '단순투자'보다는 강한 공시의무를 부과

② 임원의 선·해임이나 합병 등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 
미칠 수 있는 사항은 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

③ 공적연기금은 다른 투자자보다 다소 완화된 공시의무를 적용\*  
토록 하였으나, 이는 적대적 M&A나 경영권 취득 가능성이  
없음을 고려한 것임

\* 일반투자 목적의 경우 공적연기금은 월별보고, 그 외 일반투자자는 10일내 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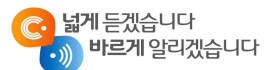
## 2. 공적연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전면 면제는 사실과 다릅니다.

- ☐ 현재 공적연기금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해당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도 됨
  - ☐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되는 ‘일반투자’ 영역은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만 ‘경영권 영향 목적이 없는 경우’에 해당
  - ☐ 활발한 주주활동을 이유로 ‘일반투자’ 영역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, 현재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문제
    - 이에 따라, 공적연기금이 내부통제기준 및 내·외부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의 특례를 유지·보완하려는 것임
- ⇒ 미공개정보의 이용 가능성이 차단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임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 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  
[prfsc@korea.kr](mailto:prfsc@korea.kr)



**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**